



환절기모돈관리

이정원

코리아화임

-가을철을 맞아 모돈관리에 대해○
-이유부터 수유기까지 알아보고 더.....○
-불어 종모돈과 후모돈의 관리 방.....○
-법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A. 이유모돈의 사양관리

한 여름의 무더위로부터 이제는 해방되는 시기이나 그 여파로 11월께까지는 발정 재귀일이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발정재귀에 저해되는 요인을 색출하여 제거해야 하며 특히 이유모돈의 군사시에 체중의 변이가 크지 않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되며 군사로 인한 환돈 발생으로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사료급여

이유전 수유로 인하여 허약해진 모돈의 영양상태를 보강해주는 시기이므로 열량이 높은 사료를 급여하고 동시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투여하여 체력의 회복과 배란수의 증가를 유도한다.

사료급여는 모돈의 건비상태와 유방의 상태에 따라 증량함이 바람직하다.

2. 재귀발정

원활한 수유과정을 지난 이유모돈은 이유 1주일 이내 80~90%의 재귀발정이 오지만 수유기 사양관리 소홀로 발정이 지연되거나 발정이 오더라도 미약하게 오는 둔발정 또는 교미가 되어도 계속 발정이 오는 지속발정 등의 번식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유기의 모돈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발정의 대책은 홀몬제나 PMS, HCG 투여로 발정을 유발시킬 수 있으나, 잘못 남용하면 영구 불임돈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착실한 사양관리에 의해 정상적으로 재귀 발정을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 적절한 운동과 돈방을 이동하며 합사
- 사료량의 급격한 변화
- 청초, 비타민, 미네랄 급여
- 근접돈방에 웅돈을 두거나 1일 30분 이상 웅돈과 접촉

이밖에 현장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응용하여 재귀 발정의 극대화를 꾀한다.

3. 환경온도

한여름이라면 나무그늘, 단열재, 수용장 및 샤워시설로 온도를 인위적으로 내려준다지만 요즘 날씨 환경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앞으로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할때이므로 환절기의 호흡기 질병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B. 임신돈의 사양관리

1. 임신 전반기 사양관리

정확한 종부적기 포착으로 종부가 된 모돈은 임신으로 인정하고 강정기간중에 증량 급여된 사료량은 서서히 환원하여 유지사료만 급여토록 한다. (NRC표준·TDN 68~70%, C P13%) 사료량은 1일 2.5kg정도면 족하다.

임신초기에 되도록이면 청초나 싸일리지를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절대 과비되지 않게 한다. 무더위로 인한 태아(배) 사망의 우려는 없는 시기이나 과비로 인한 배사망 요인은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합사, 혼

사를 피하고 각종 주사나 외부적 충격이나 자극을 주어진 안되며 인위적 운동을 피하고 자율적 행동을 하게 한다.

2. 임신말기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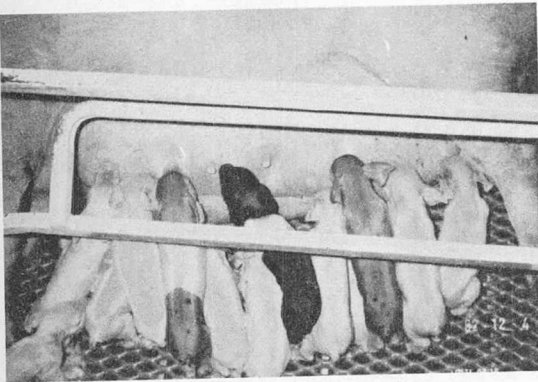
번식돈은 자돈 생산을 위해 사육하는 것이므로 작은 실수로 크나큰 과오는 없어야 하겠다.

이 기간에는 임신돈의 체중은 물론 자궁태아, 양막, 유선등의 중량증가가 매우 빠르게 되어 이에 필요한 임신돈의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사료량은 전반기 급여의 20~30% 증량 급여하고(TDN 68-70% CP14%) 철저한 개별급이로 사료 섭취량의 격차가 생기지 않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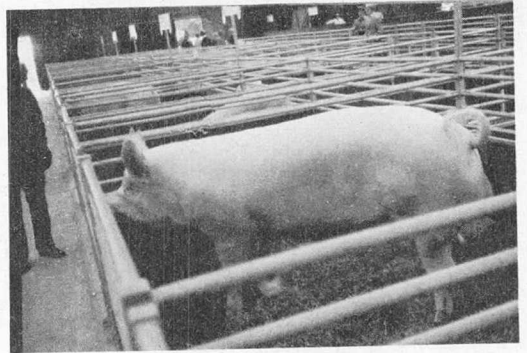
분만을 하게 되면 고열량 사료로 교환을 해야 하나 산후 즉시 사료 변경으로 인한 소화기능의 스트레스는 유질 변화에 의한 신생자돈의 하리가 발생하므로 분만 1주전부터 수유사료(CP15% TDN 73-75%)를 서서히 교체하는 동시에 소화불량에 의한 유질변화나 변비를 예방해야 한다.

C. 수유모돈의 사양관리



포유자돈이 너무 취약하여 흡유를 정상적으로 못할때는 유선 발달이 지연되어 유량의 감소, 또는 단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유방 마사지, 온습법 등으로 비유를 촉진할 것이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돈을 양출하거나 인공포유를 시켜야 한다. 특히 수유돈의 유질변화에 의한 자돈하리를 예방해야 한다.

D. 종모돈의 관리



무더운 여름철을 보낸 종모돈의 능력향상을 위해 운동강화, 비타민과 미네랄의 투여, 청초 급여 등을 행하며 정자 활력검사를 통해 능력이 저하된 종모돈은 도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콜레라와 돈단독의 예방접종을 일제히 실시해 주며 환절기의 보온을 위해 깔짚 등을 깔아 주기 시작하는 편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 후보돈의 관리



무더운 여름철을 방목장에서 보낸 연유로 발육이 불량하거나 환돈 및 위축돈은 최종 선발에서 도태시킨다.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환경, 기후여건이 좋아지고 사료 섭취가 왕성해지나 파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충분한 급수와 적당량의 사료, 적절한 운동으로 도태대상의 손실을 없애야 하겠다. 또한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분만실패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